

-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2019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 출장기간 : 2019. 10. 7.(월) ~ 2019. 10. 11.(금) / 4박5일
- 출 장 국 : 중국 【상해/ 용정/ 백두산/ 하얼빈】
- 출장목적 :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유적지
현장을 탐사 및 연구 조사하여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계승·보전하고
올바른 역사관 및 국가관을 정립하고자 함.
- 보 고 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서 명
대전대덕구의회	의 장	서미경	
대전대덕구의회	부 의 장	김수연	
대전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은희	
대전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경수	
대전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김태성	
대전대덕구의회	의 원	오동환	
대전대덕구의회	의 원	김홍태	
대전대덕구의회	의 원	이삼남	
대전대덕구의회	과 장	김용성	
대전대덕구의회	속기 6급	김미경	
대전대덕구의회	행정 7급	김주현	
대전대덕구의회	행정 8급	도가람	

상기와 같이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9. 10.

차 례

I. 출장개요	3
II. 출장일정	4
III. 주요일정 및 시사점	5
1. 상해 임시 정부청사 및 애국지사 사적지 탐방.....	5
2. 독립운동 사적지 및 명동촌 탐방.....	7
3. 민족의 영산 백두산 탐방.....	11
4. 애국열사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	13
5. 아픈역사가 담긴 731부대 유적지 방문.....	14
IV. 총괄.....	16

2019 중국 【상해/ 용정/ 백두산/ 하얼빈】 방문결과보고

일본의 역사왜곡문제 등 망언과 망동에 결연히 대처하고,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계승, 보전코자 독립운동 항일유적지 보존 및 관리실태 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방문결과 보고임

I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유적지 현장 탐사 및 연구 조사
-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계승·보전하고 올바른 역사관 및 국가관을 정립
- 해외 현지 방문 및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견문을 확대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

○ 기 간 : 2019. 10. 7.(월) ~ 2019. 10. 11.(금) / 4박5일

○ 출 장 지 : 중국 【상해/ 용정/ 백두산/ 하얼빈】

○ 인 원 : 의원 8인, 의전 및 인솔 4인

○ 주요내용

- 상해 임시 정부청사 및 애국지사 사적지 탐방
(상해 임시정부청사, 홍구공원 및 윤봉길 기념관, 만국공묘)
- 독립운동 사적지 및 명동촌 탐방
(봉오저수지, 15만원 탈취사건 유적지, 운동주시인 생가, 명동학교)
- 민족의 영산 백두산 탐방
- 애국열사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
- 아픈역사가 담긴 731부대 유적지 방문

II

출장 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업무수행내용	비고
10/07 (월) 1일차	인 천 상 해	06:30 09:05 10:05 12:00 13:00 15:00 18:00	인천 국제공항 1터미널 3층출국장 L카운터 도착후 출국수속 인천 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2시간) 상해 국제공항 도착 입국수속 후 중식 상해 임시정부청사 방문 현장탐방 [홍구 공원 및 윤봉길 기념관 탐방 등] 석식 후 취침	
10/08 (화) 2일차	상 해 항 주 용 정	06:00 07:45 10:50 11:30 12:30 14:00 14:30 16:00 17:00 20:00	기상후 공항으로 이동 상해공항 출발(비행시간 3시간 5분) 연길 공항 도착 도문으로 이동 두만강 접경지대 방문 현장탐방 [봉오동전투 유적지 입구에서 조망] 용정으로 이동 현장탐방 [북한도 독립운동 사적지 명동촌 탐방] -15만원 현금탈취사건 유적지, 명동학교, 윤동주 시인의 생가 이도백하로 이동(약 3시간) 석식 후 취침	
10/09 (수) 3일차	이도백하 백 두 산 연 길	07:00 08:00 09:00 16:00 18:00	조식 백두산 북파로 이동 (약40분소요) 현장탐방 [민족의 영산 백두산 탐방] 연길로 이동 (약2시간소요) 석식 후 취침	
10/10 (목) 4일차	연 길 하얼빈	07:00 08:30 09:30 13:30 14:00 15:00 16:00 18:00	조식 열자역 이동 연길 서역 출발(3시간58분) 하얼빈 서역 도착 중식 후 공식방문 [애국열사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 하얼빈 문화탐방 석식 후 취침	
10/11 (금) 5일차	하얼빈 인 천	07:00 09:00 12:30 14:30 18:50	조식 공식방문 [아픈 역사가 담긴 731부대 유적지 방문] 공항으로 이동 하얼빈 공항 출발 (비행시간 2시간20분)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주요일정 및 시사점

1. 상해 임시정부청사 및 애국지사 사적지 탐방

- 일 시 : 10.7(월) 13:00-17:30
- 장 소 : 상해 임시정부청사, 홍구공원 및 윤봉길 기념관, 만국공묘

〈 상해 임시정부청사 〉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는 중국 내 남아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청사이자 중요한 역사성을 간직한 곳이다.

독립투사들의 애환과 비장한 애국정신이 서린 이곳은 상해 임시정부청사는 1926년부터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1932년까지 대한민국의 청사로 사용했던 곳으로, 전시관의 1층에서 짧은 비디오를 시청한 뒤에 2~3층을 관람하게 되며, 전시관 내에는 상해 임시정부 당시 쓰였던 가구, 서적, 사진 등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 방문사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 앞



상해 임시정부 안내 표지판



상해 임시정부 관련 영상 자료 시청



임정요인 숙소가 있었던 영경방 골목 앞

○ 시사점 및 느낀점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상해 임시정부 방문은 감회가 새로웠다. 아쉽게도 내부사진 촬영은 금지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사용했던 태극기, 집기 등을 보며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 및 독립열사들의 애국항일운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홍구공원 및 윤봉길 기념관 〉

윤봉길의사의 도시락폭탄 의거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루쉰공원이다(현재 루쉰공원으로 불리우며 옛이름은 홍구 공원이다.) 1932년 4월 29일 25세의 윤봉길의사는 이곳 루쉰공원에서 일본 고관들이 서있는 단상을 향해 폭탄을 던졌고, 그로 인해 점령군 사령관 시로카와 일본거류민단장 카와바타가 죽었다. 이 외에도 주요 일본 고관들이 죽거나 다쳤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공원 내 작은 언덕위에 빨간 2층 목조건물로 건물 앞에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읽을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며, 1층에는 윤봉길 의사 흉상과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고, 2층에서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와 관련된 영상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 방문사진



전시관에 놓여있는 윤봉길 의사의 흉상



전시관 외부 전경

○ 시사점 및 느낀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폭탄 사건이 먼저 떠오르는 곳이지만 현재는 루쉰공원이라 불리며 약소하게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흉상과 사용했던 도시락폭탄 등의 전시 사실만으로도 윤봉길 의사의 업적을 기리기에는 충분했다.

< 만국공묘 >

상해에서 활동하다가 타계한 한인독립운동가의 묘가 있는 곳이다. 여기에는 한국인의 묘로 확인 또는 추정 되는 14기의 묘가 있다. 이 가운데 노백린·박은식·신규식·안태국·김인전 등 5기는 1993년 8월 5일에 봉환되었고, 윤현진·오영선 2기는 1995년 6월 21일에 봉환됐다. 안태국 묘의 바로 옆에는 조상섭의 표석과 임계호 등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표석이 남아 있다.

○ 방문사진



신규식 선생 묘지 표석



만국공묘

2. 독립운동 사적지 및 명동촌 탐방

○ 일 시 : 10.8(화) 14:00~17:00

○ 장 소 : 봉오저수지, 15만원 탈취사건 유적지, 운동주시인 생가, 명동학교

< 봉오저수지 및 15만원 탈취사건 유적지 >

- 이곳은 1920년에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대파시킨 곳 인데 , 봉오동전투는 중국 영토인 만주지역에서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본격적으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전투라고 할 수 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독립군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1920년대에 독립전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 간도 15만 원 탈취사건은 군자금 마련의 일환으로 철혈광복단의 열혈애국청년들이 치밀한 계획 속에 진행한 기습사건이었다. 일본의 조선은행자금을 직접 탈취하여 무기구입 등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려는 대담한 시도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불과 27일 만에 주동인물 3명이 일제당국에 체포되어 처형되고, 자금의 거의 모두를 빼앗기는 안타까운 결말을 가져온다.

○ 시사점 및 느낀점

지금은 비록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역사 속 현장의 모습이 머릿속에 상상되어 잊어지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도 이곳들에 대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곳들이 바로 과거에 독립운동이 전개된 역사적인 현장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현장이다.

○ 방문사진



봉오동전투가 있었던 봉오저수지 앞



15만원 탈취사건 유적지

< 윤동주 시인 >

일제강점기에 짧게 살다간 젊은 시인으로, 어둡고 가난한 생활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고뇌를 사색하고, 일제의 강압에 고통 받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철인이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얼마 되지 않는 시 속에 반영되어 있다. 그의 절정기에 쓰여진 작품들이 1941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발간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의 자필 유작 3부와 다른 작품들을 모아 친구 정병욱과 동생 윤일주에 의해 사후에 그의 뜻대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정음사(正音社)에서 출간되었다.

○ 방문사진



‘서시’ 조각물



윤동주 시인 생가(복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시인 전시관

○ 시사점 및 느낀점

대다수의 문인들이 친일파로 변절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붓으로 일제에 저항하였기에 그가 남긴 시들은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더욱 깊이 남아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애국시인 윤동주를 ‘중국조선족애국시인’으로 표시하여 놓았다는 것이며, 하루빨리 시정되길 바란다.

< 명동학교 >

1908년 김약연 등이 북간도의 룡징에 세운 근대적 민족교육기관이다.

1925년 문을 닫을 때까지 1,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신문화 보급과 민족의식의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명동학교는 서전서숙과 함께 재만한국인을 위한 민족교육의 주류였으며 민족교육기관의 원조로서, 인재를 양성하여 독립운동가 및 민족교육자로 배출, 재만한국인사회에서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하게 한 요람지였다.

○ 방문사진



명동학교 기념관 내부



명동학교 기념관 내부



명동학교 소개글



명동학교 옛터

○ 시사점 및 느낀점

명동학교는 일제가 조선인 독립운동의 소굴이라 여기며 강하게 탄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독립사상을 고취시키는 교육에 충실하였다. 우리도 이 사상을 본받아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계승·보전하고 올바른 역사관 및 국가관을 정립하고자 한다.

3. 민족의 영산 백두산 탐방

○ 일 시 : 10.9(수) 10:00~15:00

○ 장 소 : 백두산 천지, 장백폭포, 녹연담

< 백두산 >

백두산은 지금부터 약 100만 년 전에 화산 작용으로 땅속 깊은 곳에서 용암이 솟아나와 이루어진 화산이다. 본래 이 지역은 화강편마암과 화강암으로 된 흔히 볼 수 있는 산지였으나 화산이 용암을 분출했을 때 처음에는 현무암 용암이 솟구쳐나와 수많은 골짜기들을 메우면서 넓게 퍼져서 현무암 지대를 이루어놓았다. 그다음 알칼리조면암과 흐름무늬암 등의 용암이 흘러나왔는데 그 흐름이 약해져 멀리 흘러내리지 못하고 식어 덧쌓이면서 오늘날과 같은 백두산의 형태를 이루었다.

백색의 부석(浮石)이 얹혀 있으므로 마치 흰 머리와 같다 하여 백두산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른다.

*백두산 천지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칼데라호이다. 또한 용암이 분출하여 용암평원을 이루었으므로 순상화산의 형태를 보여주며 중앙화구는 함몰되어 칼데라가 되었다. 천지의 맑은 물은 압록강과 두만강, 중국 송화강의 원류가 된다.

○ 시사점 및 느낀점

백두산 천지 앞에 다다르니 왜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끝도 없이 펼쳐진 백두산의 장관을 볼 수 있었다. 벅차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천지를 가슴에 담고 뒤를 돌아보니 백두산 정상에 있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멋진 곳을 돌고 돌아 중국의 먼 길로 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머지않아 백두산 천지를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가로질러 오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백두산 천지를 내려왔다.

○ 방문사진



백두산 올라가기 전



백두산 천지



장백폭포 앞에서



녹연담



백두산 등반을 기념하며



백두산 정상에서

4. 애국열사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

- 일 시 : 10.10(목) 15:00~16:00
- 장 소 : 안중근 의사 기념관

< 안중근 의사 기념관 >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중국 하얼빈역에 자리한다. 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극비리에 설립이 추진되다가 2014년 1월 19일 전격 개관했다.

기념관에는 흉상을 비롯해 그의 생애를 담은 각종 사진과 사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중국 내에서도 존경받는 저명한 항일 의사인 안중근이 하얼빈에 11일간 머물며 진행한 역사적 의거의 기획, 준비 과정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으며, 의거를 재현한 모형도 함께 볼 수 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단지된 손을 형상화한 브론즈 조각품 ‘거룩한 손’ 앞에서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이 뭉클해진다. 하얼빈역 내에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 지점에 바닥 표지석이 있다.

○ 방문사진



안중근 의사 흉상



이토 히로부미 저격 지점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안중근 의사가 열거한 이토 히로부미의 15조 죄목

○ 시사점 및 느낀점

그의 흉상과 각종 전시물을 보며 이곳 작은 전시관에서 우리나라의 애국자인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이 느껴졌다.

또한 유리창 너머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장소가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어 그때의 상황이 더 생생하게 떠오르며 가슴이 뭉클했다.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그를 도왔던 모든 애국지사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기념관을 나왔다.

5. 731부대 유적지 방문

○ 일 시 : 10.11(금) 09:00~12:00

○ 장 소 : 731 부대

< 731 부대 유적지 >

1939년 이시이 시로가 창설한 생화학 실험 기지로, 하얼빈 근교에 위치해 있다. 생체 실험 대상은 주로 한국, 중국, 러시아, 영국 포로들이었다. 전쟁 기간동안 이곳에서 실험으로 희생된 사람 수는 약 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부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0년대초 한 일본기자에 의해서이며, 그 이전까지는 의학실험 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이시이 시로의 만행을 면죄한 미국만이 알고 있었던 극비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일본인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자행하였는지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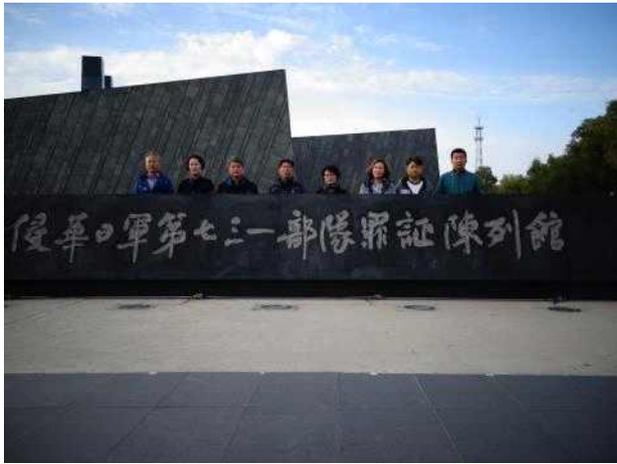
○ 시사점 및 느낀점

많은 시간이 흘러 이 곳에 서있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잔혹한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말로만 듣던 여러 가지 생체 실험 및 그 당시 사용했던 도구와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어 일본군들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전시관에는 생체실험으로 인해 몸이 성하지 않으신 분들의 사진이 전시되어있었는데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 들어 그 앞을 오랫동안 떠날 수 없었으며, 나라 잃은 비통함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 방문사진



731부대 유적지 앞



비인도적 잔학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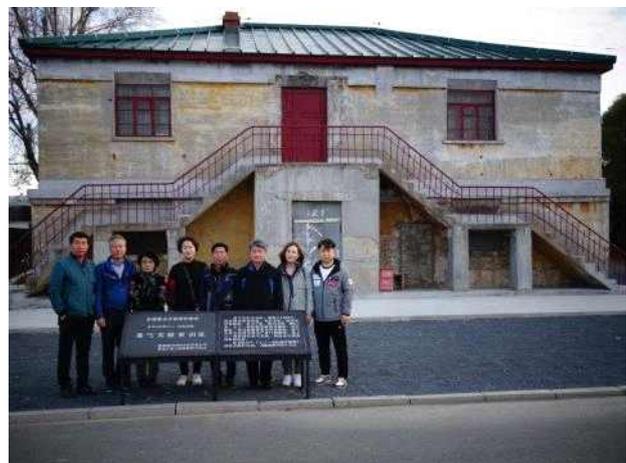
생체 실험 당시 사용하였던 기구들



생체 실험 대상자들을 가두어 두었던 곳



731부대를 폭파 시키고 도망하려고 했던
흔적으로 가운데 굴뚝이 무너져있음



독가스 실험실

IV 총괄

- 나라를 잃고 일제의 거친 탄압 속에서도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지속한 선열들께 감사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전개한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계승·보전하고 올바른 역사관 및 국가관을 정립하고자 한다.
- 우리들이 오늘날 자주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그 황량한 낯선 이국땅에서도 조국이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독립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그 정신을 충분히 기리지 못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송구스럽다.
- 또한 백두산 천지를 직접 경험한 감동을 뒤로하고, 우리 민족 영산인 백두산을 타국을 통해 봐야만 하는 분단의 아픔도 함께 느끼며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과거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던 간도 지역이 중국 동북공정에 의해 왜곡된 중국의 역사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에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할 사명감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해 구민의 대표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 한편 백두산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만 운행하여 야생동물과 식물연구에 큰 도움을 주는 등 자연보호를 위해 힘쓰는 모습,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남은시간을 안내해주는 카운터 신호체계를 도입하여 사고 예방에 힘쓰는 모습 등은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좋은 점이라 생각한다.